

송준영 시인과

禪詩 깊이 읽기



5. 파초의 주장자

서용 상순(西翁尙純, 1912-2003) 선사 를 만나게 된 것은 내 삶의 크나큰 광영이 었다. 스님께서 80노구에도 불구하고 강 원도 강릉에서 찾아 올라간 나를 한 번도 마다하지 않고 7년간 일곱 차례나 일천 한 공부를 점검해 주시는 두터운 법을 내리셨다. 참으로 지극한 낙초자비(落草 慈悲)였고 간절과파심절(懇切老婆心切) 이었다. 백골(白骨)이 난망(難忘)이다.

有無今古兩重關
바른 안목 가진 선객도 지나기 어렵다
正眼禪人過者難
장안으로 가는 큰길로 통하게 하려거든
欲通大道長安路

없으면 어디에도 없다
你無則一切無
있고 없는 것은
你有無
오직 본인이 준다 뺏는다 할 뿐
自是當人與奪
파초에게 무슨 관계있으랴?
關芭蕉甚事
이럴 때, 어떤 것이 그대의 주장자인
가?
正伊麼時作麼 生是你拄杖子
- 천동각
무더운 한 여름 서용 화상을 보았다. 스

잠시 양구하다가 말씀을 올렸다.
“스님, 스님과 저, 모두 같은 지팡이 안
에 있는데, 무얼 주고받는단 말씀입니
까?”
물끄러미 바라보시던 스님이 말씀을
열었다.
“아니야, 아니야 탐기에 때가 묻어 때
가 묻어. 다시 참구하라. 왜 국민학생이
100미터 달리기를 하듯, 월봉대에 마지막
턱걸이를 하듯 그렇게 다시 참구하라.”

투자 의형의 2 계승에서 보듯이 ‘이
유/무 양변의 관문은 실로 눈 푸른 납자들
도 통과하기 어려움’을 읊었고, 또 ‘무상
대도(無上大道)의 길을 사통오달되게 하
려면, 4행에서 곤륜인이 활개치고 다니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곤륜족은 티베트
북쪽 일대에 사는 흑인종족이다. 곧 나의
마음이 나이며 자성이고, 이 자성의 활성화
화가 평평법법의 일상이나. 특이한 생
각으로, 밖에서 자성본원을 찾으려는 어
리석음을 잊지 말기를 당부하고 있다.

①는 천동정각이 시중환 영(聖)이다. 자
성본원은 큰 거울과 같은 원만한 지혜로
서, 일체 삼라만상이 비추어지지 않는 것
이 없고 비치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비
친다(비춘다)’를 완전히 벗어난다. 그러나
파초 자신이 괜히 ‘준다/뺏는다’ 하며 분
별하여 사람을 속일 뿐, 이 자성의 현상화
인 주장과 파초와 사실 무슨 관계가 있
리오. 이럴 때 무엇이 주장자이고 무엇이
나인가?

보배 지팡이 네가 가졌으면 즐겼이고...
양변의 관문 통과하기 어려움 실로
자성 본원의 거울엔 천지만물이 비칠 뿐

곤륜이 활개 띄고 다니지 못하게 하라
莫聽崑崙絃往還

- 투자정

남이 나에게 말했다.
“억울하나? 그래도 억울하면 다시 한
번 해보자. 나에게 보배로운 지팡이가 하
나 있는데, 네가 가졌다면 나는 이것을 너
에게 줄 것이고, 너한테 이 지팡이가 없다면
내가 빼앗아 가겠노라는 법문이 있는
데, 그럼 이 도리를 네가 한 번 일러봐라.”

②
그대에게 있으면 일체에 있고
有則一切有

그 중 잊혀 지지 않는 법문이 바로 파초
산 해청 선사의 주장자 법문이다.
파초 선사는 우리나라 선방이며, 위
양종의 4대에 속한다. 그의 스승은 남탑
광용이고 광용은 양산의 제자이다.
이 파초 선사의 주장자 공안은 오늘 날
까지도 우리나라 선방에서 살아 움직이
는 현역 공안으로 빛을 발한다. 필자 역시
이 지팡이에 경을 친 적이 있다. 1990년
경 서용 선사를 참문 할 때, 나의 분별심
을 향하여 비수같이 날아들던 지팡이였
다.

③
있음과 없음은 고금에 두 겹의 관문이니

공광규 시인과 시집 즐겨 읽기

새벽강
김지하 | 시학 | 1만원



피안 같은 건
있지도
없다

그날도
없다

더욱이
있음 같은 건 아예 없다

있는 것은
단 하나
살아있음 뿐

지금 여기
살아있음이 끊임없을 뿐

오늘이,
오늘이 바로
그날.

- '도피안' 부분

1941년 전남 목포에서 출생한 김
지하는 4.19혁명 참여 및 남북학생
회담 남측대표, 당시 '오적'으로 투
옥,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오랜 감옥생활을 한 기구한
운명의 시인이다.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한 그는
1969년 <시
인>지로 등
단하였다. 아
시아아프리카
작가회의의 로터스상 특별상, 세
계시인대회 위대한 시인상, 브루
노 트라스키 인권상 등 국제적인
상과 만해대상 평화상을 받았다.
만해문화상 등 국내외의 많은 문화
상도 수상하였다.

동양 전통의 세계관적 사유와 영
성적 통찰로 생명과 평화 운동을
벌이고 있는 그는 최근 '불교에 기

대한다. 온 인류가 불교에 기대한
다. 지구, 우주, 전 중생계가 불교에
기대한다.'(<불교문예> 2007 봄)며
불교에 인류의 미래를 맡기는 시인
이다. 불교가 우주적 보편성을 가진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최근 자신의 현존 의식을 다음과

불교적 사유로 생명·평화 그려내

같이 시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단군기원
사천삼백삼십칠 년

정월
우수 뒷날

내 마음을 마주해 앉자

시인이 예순
네 살의 정월
우수 뒷날에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 본 결과 모
심과 침묵, 그리고 허름한 현실주
의가 자신의 정체라는 것이다. 모
심은 동학에서 나온 것이고 침묵
은 불교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내 사상의 망막은 불교이며 그
눈동자는 동학이다”라고 고백하
기도 했다. 이런 그가 도피안을 보
는 방식은 이렇다.



「대현 스님」 길없는 길을 가리켜 보이다
선승禪僧의 길
화두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서 밤낮으로 함께 지내는 연인 같다면
누가 참선수행에 몰입하지 않겠는가?
오직 수행으로만 일관하여 50안거를 성만하신
대현 스님이 가리켜 보이는 길 없는 길!
無等大玄 스님
백양사로 출가, 강진 백련사에서 南山正日스님을 은사로 득도하신 스님은, 1975년 인천 용화사 법보선원에서 안거 후
제방선원에서 50안거를 성만하셨다. 간화선이야말로 깨달음에 이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만큼 기쁘르고
힘든 만큼 기초를 잘 닦아야 하며 위빠사나와 염불주려 수행의 도움을 받아 무너지지 않는 토대를 쌓을 수 있다고 하신다.
서울 우이동 보광사 보광선원 선원장이다.
중생은 제8아뢰야식에 함장된 업에 의해 여러장심이 굴림을 당하고, 부처는 여러장심으로 업을 굴린
다. 비유하자면 여러장은 주인이요, 제8아뢰야식에 함장된 업은 머슴이다. 주인인 여러장이 머슴을
부려서 번뇌를 반야로, 무기를 불매내뉘로 바꾸어 대원경지를 이루면 부처요,
주인인 여러장이 머슴에게 고달려서 번뇌와 무기에 빠져 육도윤회를 하면 중생이다.
— 본문 중에서
현대불교신문사 발행
신국판 / 280쪽 / 값 12,000원
도서출판 아시아문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el: 0212004-8246(출판부), 0212004-8219(영업부), Fax: 021737-0696
아시아문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초 대표

⑤ 땅두릅산적과 땅두릅회

이번에도 땅두릅으로 맛있는 사찰
음식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땅두릅은 우리나라 어디서나 잘 자
라므로 정원에 심어 길러도 관상용으
로 맛있습니다. 잎사귀가 풍성하고 늦여
름이면 꽃이 불꽃놀이처럼 튀면서 탁
구공만한 여러
송이가 모여
하얗게 피는
모습이 정말
장관입니다.

뿌리 어디 하나 버릴 것이 없는 귀한
식품이기에 산사에서 스님들의 식
용이나 약용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어린 손은 나물로, 꽃은 튀김이나 찹쌀
물을 발라 말려 부각으로 만들어 먹으
며, 뿌리는 약제로 훌륭히 몫을 해냈니
다. 병명에 따
라서 다른 약
제와 혼합해서
쓰기도하고 땅
두릅 자체만으
로도 인삼 버금가는 약효를 내기도 합
니다. 때문에 차로 마시거나 식재나 옛
을 고을 때 넣어 먹기도 합니다.
오늘 만들어 볼 음식은 땅두릅을 이
용한 산적과 봄철 입맛을 되살려줄 땅
두릅회입니다.

열매 끝에 재워 마시면 기침에 효과
순은 나물, 꽃은 튀김, 뿌리는 약제로

그리고 가을이면 까맣게 열매를 맺습
니다. 그 열매를 따서 그늘에 말려 곱
게 가루를 내어 3-4 그램씩 끝에 재
워서 아침저녁으로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시면 기침에 특효약이 됩니다.
땅두릅은 어린순 그리고 꽃, 열매,

다. 병명에 따
라서 다른 약
제와 혼합해서
쓰기도하고 땅
두릅 자체만으
로도 인삼 버금가는 약효를 내기도 합
니다. 때문에 차로 마시거나 식재나 옛
을 고을 때 넣어 먹기도 합니다.
오늘 만들어 볼 음식은 땅두릅을 이
용한 산적과 봄철 입맛을 되살려줄 땅
두릅회입니다.



땅두릅산적

재료: 땅두릅, 두부, 밀가루, 식용유

- 1. 땅두릅은 연한 소금물에 살짝 데쳐서 굵은 것은 4등분으로 쪄고 가는 것은 2등분으로 쪄개 7센티 길이로 자른다.
2. 두부는 1cm 두께로 썰어 프라이팬에 콩기름을 두른 후 노릇노릇하게 굽는다. 잘 구워진 두부는 7cm 길이로 썰어둔다.
3. 산적꽃이에 땅두릅과 두부를 번갈아 끼운 다음 얇은 밀가루 반죽에 묻힌 후 구워낸다. 이 때 밀가루 반죽은 두부와 땅두릅이 겨우 영길 정도로 얇은 반죽이어야만 색깔도 살고 먹기 에 부드럽고 향기도 더하다.

땅두릅회

재료: 땅두릅, 고추장, 식초, 설탕, 맛

- 1. 땅두릅은 연한 소금물에 피랴게 살짝 데쳐 굵은 것은 4등분, 가는 것은 2등분으로 쪄
둔다. 두릅이 클 경우 길이가 7-8cm 정도 되게 썰어 둔다.
2. 고추장, 식초, 설탕을 넣어서 새콤달콤하게 초고추장을 만들고 것을 섞는다.
3. 미리 준비한 땅두릅 데친 것에 초고추장을 넣어 먹기 직전에 버무려 낸다.